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19. 8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
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(TV조선 8.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보도의 내용과 같이 ‘위기감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었다’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
- ◇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, 업계애로를 청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,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
- ◇ 8월 13일 TV조선 <“위기감 조성말라” 정부방침에 “부품 차질” 말 못하는 기업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국내의 한 완성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
-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어 노사교섭 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, 가정을 토대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(1)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
- (2)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 실시, 업계 애로청취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으며,
 -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, 국내생산 확대·금융·기술 개발 지원, 환경·노동 애로해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

※ 문의: 자동차항공과 양병내 과장/박일철 서기관(044-203-4321)